



15

제15회 스웨덴영화제

THE 15TH SWEDISH FILM FESTIVAL



Embassy of Sweden
Seoul



Swedish
Institute



Swedish
Film Institute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9월 8일(화) – 9월 14일(월)

부산 영화의전당

9월 10일(목) – 9월 14일(월)

인천 영화공간 주안

9월 10일(목) – 9월 13일(일)

대구 CGV 대구현대

9월 18일(금) – 9월 20일(일)

주최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

주관

(주)영화사 백두대간
(재)영화의전당
영화공간 주안
재대구 스웨덴명예영사관

후원

한국스웨덴문화예술협회

www.swedishfilmfestival.com



제15회 스웨덴영화제

THE 15TH SWEDISH FILM FESTIVAL



스웨덴이기에 만들어낼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대사

스웨덴영화제가 올해로 뜻깊은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자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스웨덴 영화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한국은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와 깊이 교감하고 있으며, 한국 영화 역시 그 중심에서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영화제는 2012년 한국 관객에게 다소 낯선 스웨덴 영화를 소개하는 소박한 첫걸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스웨덴영화제는 양국 영화 산업을 잇는 교두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두 나라의 영화인들이 공동 제작을 함께 논의하는 더욱 깊은 동반자 관계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제15회 스웨덴영화제에서는 지난 1년간 스웨덴 현지에서 큰 사랑을 받은 화제작부터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호평받은 명작까지 총 9편의 상영작을 선보입니다.

개막작은 안드레아스 외만 감독의 <세븐 스텝>입니다. 스톡홀름, 파리, 그리고 서울을 무대로 과거와 현재, 가상과 현실의 시공간을 감각적으로 넘나드는 작품입니다. <심플 사이먼>과 <이터널 썬머>로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외만 감독이 이번 영화제를 위해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기억을 섬세한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풀어내어 올해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경쟁(타이거)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아름다운 그해>의 안젤리카 뤼피에 감독 역시 방한하여 서울과 부산의 관객들과 뜻깊은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스웨덴의 대표 제작사 FLX의 요슈아 메르 대표, 언리미티드 스토리의 에밀 위클룬드 대표, 그리고 스웨덴영화진흥원의 사라 퀴스테르 다큐멘터리 총괄의 방문은 양국 영화 산업의 실질적인 협력을 한층 더 단단하게 구축하는 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의 상영작들은 스크린 안팎의 경계를 허물며 우리가 살아가며 직면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응시합니다. 특히 비중 있게 포진된 다큐멘터리 라인업은 우리 사회의 화두를 가식 없이 조명하며 ‘예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울러 전체 상영작의 절반에 달하는 여성 감독들의 연출작은 포용과 균형을 중시하는 스웨덴의 문화적 가치와 글로벌 영화계의 흐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영화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한국스웨덴문화예술협회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직 ‘스웨덴이기에 만들어낼 수 있는’ 아홉 편의 진솔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랫동안 잔상을 남기길 바랍니다. 스웨덴 영화가 안내하는 이 특별한 여정을 편안하고 깊이 있게 즐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스웨덴 영화가 지닌 예술적·사회적 의미를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이상균
한국스웨덴문화예술협회 회장

뜻깊은 제15회 스웨덴영화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화제를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신 칼-올프 안데르손 대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관객에게 스웨덴 영화의 깊이와 매력을 꾸준히 소개해 오신 주한스웨덴대사관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어 온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에, 이 영화제가 매년 더욱 풍성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한 편을 관객과 무사히 만나게 하는 일이 때로는 영화 속 모험만큼이나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새삼 느낍니다.

저는 예술은 서로 다른 나라와 사람을 잇는 가장 따뜻하고도 깊은 연결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영화는 한 사회의 정서와 생각,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일상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예술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낯선 언어와 환경을 마주하면서도, 기쁨과 상실, 갈등과 화해, 성장과 연대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스웨덴 영화 특유의 차분하고도 단단한 시선은, 때로 우리 마음의 재생 속도를 한 박자 늦추어 더 오래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경험은 서로 다른 문화를 단순히 알게 되는 것을 넘어, 그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5년간 스웨덴영화제는 한국 관객에게 스웨덴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선을 전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화제는 한국과 스웨덴이 서로의 문화적 감수성과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의미 있는 만남의 장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스웨덴문화예술협회는 이처럼

뜻깊은 스웨덴영화제의 성장과 역사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영화제의 주제는 ‘스웨덴이기에 만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귀한 9편의 영화를 통해 스웨덴 영화가 지닌 폭넓은 시선과 사회적 감수성을 어떻게 펼쳐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특히 올해 영화제에는 개막작 〈세븐 스텝〉의 안드레아스 외만 감독님, 〈아름다운 그해〉의 안젤리카 뤼피에 감독님을 비롯하여, 스웨덴 영화 산업의 주요 대표님들이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깊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만남이 스웨덴 영화의 현재와 미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영화가 지닌 예술적·사회적 의미를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웨덴영화제 내내 많은 담론이 극장 곳곳에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15회 스웨덴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스웨덴이기에 만들 수 있는 이야기

제15회 스웨덴영화제, 9가지 시선



정재현
〈씨네21〉 기자

현실을 응시하는 영화들

2026년 9월 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15회 스웨덴영화제는 총 9편의 스웨덴 영화를 상영한다. 지난 1년간 스웨덴 관객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은 물론 베니스, 베를린, 로테르담 등 명망 있는 국제영화제에서 두루 호평을 받은 영화들이 포진해 있다. 어느 해보다 다큐멘터리의 비중이 크고, 예년에 이어 여성 감독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전체 초청작의 3분의 1이 다큐멘터리이고, 4편의 상영작이 여성 감독의 연출작이다. 이 경향은 스웨덴 영화가 지역적 경계를 넘어 동시대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의식과 미학적 성취를 달성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다큐멘터리의 약진은 예술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이 크다. 영화가 전세계 관객들과 함께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직면해낸 것이다. 절반에 가까운 여성 감독의 비중은 성평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스웨덴 사회의 가치관이 부인할 수 없는 초국가적 흐름임을 드러낸다. 9편의 초청작은 이같은 의의 이외에도 스웨덴이므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완성해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제15회 스웨덴영화제에선 각 작품이 지닌 시의성을 직접 감독에게 물어볼 수 있다. 다수의 초청작이 감독과의 만남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안드레아스 외만 감독은 〈이터널 섬머〉로 내한한 이래 9년 만에 개막작 〈세븐 스텝〉으로 스웨덴영화제를 찾는다. 그의 작품 〈심플 사이먼〉이 제1회 스웨덴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만큼, 또 〈세븐 스텝〉이 서울에서 일부 촬영된 만큼 관객들의 질문이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만은 내한 중 직접 관객과의 대화(GV)에 나서는 것은 물론 영상 인터뷰로도 관객과 소통한다. 한국과 인연이 깊은 또 한명의 감독이 있다. 〈댄스 클럽〉의 리사 랑세트 감독은 〈퓨어〉 〈호텔〉 〈유포리아〉 등의 작품으로 이미 수차례 한국의 영화제를 찾았다. 그는 〈대니쉬 걸〉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알리시아 비칸데르와의 인연으로도 유명한데, 비칸데르가 전술한 랑세트의 연출작에

모두 출연했기 때문이다. 〈댄스 클럽〉에 비칸데르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칸데르가 2026년 여름 한국 극장가를 뜨겁게 달군 〈호프〉에 등장한 만큼, 이 배우의 원류를 만든 랑세트의 세계를 이번 영화제에서 경험해봐도 좋을 것이다. 랑세트는 영상 인터뷰로 한국의 관객들과 반갑게 조우한다. 이밖에도 올해 로테르담국제영화제 경쟁(타이거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안젤리카 뤼피에 감독이 〈아름다운 그해〉를 들고 직접 한국을 찾는다.

길 위에서 발견하는 세계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들이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만큼, 유럽영화도 못 지않게 유럽 내 이웃 나라로 혹은 다른 대륙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스웨덴 영화 역시 스칸디나비아 문화권 특유의 긴 여름휴가를 스크린에 담았다. 잉마르 베리만이 대표적이다. 〈여름이야기〉(1951), 〈모니카와의 여름〉(1953) 등이 스톡홀름 군도의 작은 섬에서 벌어지는 여름날의 연정을 그렸고, 〈산딸기〉(1957)는 여름휴가용 별장을 영화의 주요 공간으로 다룬다. 스웨덴 영화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라세 오베리의 컬트 코미디 〈전세기 여행〉(1980) 또한 카나리아제도로 여행을 가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다(아리 애스터의 〈미드소마〉는 잠시 잊자).

제15회 스웨덴영화제에 초청된 여러 작품이 이 흐름을 이어받아 관객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 개막작 〈세븐 스텝〉은 스톡홀름과 파리, 서울을 오간다. 연젠가 엘은 연인 요제프에게 모든 관계가 7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자신은 연애에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그 일곱 절차를 엄수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엘이 실종된다. 요제프는 사라진 연인을 찾아 헤매는데, 이 내러티브 위로 1단계에서 6단계를 거친 연애의 편린이 〈이터널 선샤인〉(2004)풍으로 투입한다. 요제프의 추적은 필름 누아르 장르의 사립탐정과 다를 바 없다. 공교롭게도 필름 누아르는 오늘날 북유럽 지역에서 제작되는 범죄, 스릴러 장르물을 통칭하는 ‘노르딕 누아르’와 맞닿아 있고, “그 옛날 필름 누아르 감독들은 나의 신이었다”라고 줄곧 고백한 잉마르 베리만과도 다시 연결된다(잉마르 베리만이 각본가로 데뷔한 알프 세베리의 〈고뇌〉가 특히 이 사조에 부합한다). 주인공의 감춰둔 결핍과 상처가 극대화되는 공간이 ‘서울’이라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인물이 누비는 한강 둔치, 종로, 신촌, 홍대 일대의 풍경은 흡사 〈파친코〉의 영도처럼 한국을 바라보는 이방인의 시선이 담백 담겨 익숙한 동시에 낯설게 다가온다. 서울영상위원회의 제작비 지원 및 현장 지원으로 만들어진 영화의 후반부는 지금 국경을 넘나들며 탄생 중인 영화제작의 중요한 조류, 국제 공동제작의 주요 사례다.

파니 오베센 감독의 <리브 어 리틀>은 바르샤바, 프라하, 베를린, 파리까지 유럽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로드무비다. 두 청춘의 이름은 라우라와 알렉스. 어디서든 성적으로 분방한 알렉스와 달리, 라우라는 스웨덴에 두고 온 남자 친구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자신을 더욱 단속한다. 이국의 도시 풍경, 음주가무 등 여행 영화에 기대할 법한 젊은 날의 한철이 주요하게 다루어지지만, <리브 어 리틀>은 그저 그런 ‘엽서 영화’가 되는 길을 거부한다. 술과 약으로 흥건한 어느 밤이 지나고, 라우라는 낯선 남자의 침대에서 눈을 뜬다. 그는 기억이 끊겨 혼란스럽다. 간밤의 섹스가 합의에 의한 행위인지, 비동의로 진행된 강간인지 불분명하다. 영화는 관객 또한 불확정 영역에 놓아두며 젊은 여성의 성생활을 규정 짓는 여러 의제를 함께 고민하게 만든다. 제목의 ‘리브 어 리틀’(Live a Little)은 라우라에게 “인생 좀 즐기라”라는 알렉스의 조언으로부터 왔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대사의 의미가 관객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물론 그 뜻을 가장 절실하게 새기는 존재는 여행 중 억압됐던 욕구를 자각하고, 행로의 끝에서 일말의 성장을 도모하는 라우라일 터다. 사랑을 경유한 여성주의적 여정은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그해>에서도 드러난다. 안젤리카 뤼피에 감독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프랑스의 집으로 향한다. 유년기를 보낸 곳이자 아버지로부터 떠나온 곳. 그 집에서 형제와 함께 가산을 정리하다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발견한다. 일기 속엔 뤼피에가 학창 시절 짝사랑했던 역사 선생님 브레송에 관한 기억이 남아 있다. 영화는 여기서부터 시, 공간 그리고 매체를 넘나드는 여행을 시도한다. 이를테면 뤼피에는 당시 느꼈던 감정을 되살리며 해리 쿠멜 감독의 쿼터 컬트 뱀파이어 영화 <어둠의 딸들>(1971)을 감상한다. 또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던 배우 루이즈 브룩스까지도 떠올린다. 그의 감흥은 고스란히 영화 언어로 변모한다. <어둠의 딸들>의 한 장면처럼 스스로가 은빛 드레스를 환상 속에서 입는다가, 루이즈 브룩스의 아우라를 투영해 브레송 선생님을 떠올리는 식이다. 이 추체험에 현실의 층위까지 얹힌다. 체리와 올리브 수확, 헬러원 파티 등 아버지가 살던 마을의 소박한 동네 문화가 잊고 지낸 유년기의 추억을 재소환하는 것이다. 부고 이후 옛 동네에서 추억과 다시 연결되며 자신을 추스른 뤼피에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브레송 선생님을 찾아 새로운 여행을 떠난다.

스웨덴 문화의 기억과 유산

한국인들은 부지불식간에 스웨덴 대중문화의 영향 아래 자랐다. 아바와 카디건스의 음악은 각각 뮤지컬 <맘마미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96)의 삽입곡인 동시에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 100선’ 등에 자주 등재되고(공교롭게 두 곡 모두 개막작 <세븐 스텝>에 삽입됐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오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한국에서도 큰 애호를 누린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나 한림원 주관의 노벨문학상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미 친숙한 이름이다. <베르트가 다 망쳤어>는 안데르스 야콥손과 쇠렌 올손이 1987년 퍼

낸 청소년 소설 <베르트의 일기>에 연원한다. 소설 및 주인공 소년 베르트 용의 인기는 코믹스와 라디오 드라마, TV 시리즈와 영화를 꾸준히 낳았다. 단적으로 2020년대에만 한 편의 영화와 한 편의 TV 시리즈가 나왔다. 오리지널 베르트는 1976년생이지만, 그는 유니버스에서 영원히 연로하지 않는 10대 소년이다. 한 세대가 30년이니, 40살 생일을 코앞에 둔 이 시리즈야말로 부모와 자녀 두 세대가 모두 유·청소년기에 누리는 추억으로 자리한 셈이다. 이는 베르트가 시대를 막론하고 그맘때 청소년들이 앓는 고민을 다루기 때문일 터다. 이를테면 베르트의 관심사는 학업이 아니다. 여드름과 이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밴드 활동과 축구에 열중한다. 보편적 서사 아래 이 작품이 다루는 스웨덴 문화의 특수성은 다음 단락에서 소개하겠다.

스웨덴영화제는 매년 스웨덴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을 프로그래밍한다. 올해의 상영작 <지붕 위의 사나이>는 개봉 50주년을 맞이한 스웨덴 영화의 고전이다. 이미 스웨덴 골드바게상에서 작품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걸작이지만, 이 작품 안엔 20세기 스웨덴 문화가 남긴 다양한 유산이 녹아 있다. 먼저 이 작품은 보 비더버그의 연출작이다. (어찌지 한국인에게 대중가요의 가사로 더 알려졌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으로 유명한 <엘비라 마디간>,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입을 몇 차례 반려한 <아름다운 청춘> 등이 그의 작품이다.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름은 작품의 주인공인 ‘마르틴 베크’다. 알려진 대로 스웨덴은 추리소설 강국이다.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 연작, 헨닝 만켈의 <쿠르트 발란데르> 시리즈 등이 오래간 사랑받았으나, 이들의 큰형님 격이 바로 마르틴 베크 시리즈다. 마이 세발과 페르 발뢰외가 공동 집필한 10권의 소설이 모두 영화화됐고, <지붕 위의 사나이>는 그중 일곱 번째 소설 <어느 끔찍한 남자>를 원작으로 한다. 베크를 위시한 영화 속 탐정들은 어느 경찰관의 의문사를 수사한다. 감압수사로 악명이 높았던 그의 주변을 탐문하던 중, 무장공격범이 지붕 위에 올라 총기 난사로 경찰과 시민 모두를 위협한다. 보 비더버그는 시네마베리테(일상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려는 사실주의적 영화 운동)의 영향을 받은 감독이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고자 실제 경찰과 민간인을 대사가 있는 단역으로 기용했고, 관광객이 가득한 성금요일에 스톡홀름 오펜플란역에서 영화의 하이라이트 시퀀스를 무허가로 찍었다. 한국 관객을 위한 트리비아 하나. 마르틴 베크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속 해준(박해일)에게 영향을 준 역할 모델이다. <헤어질 결심>을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지붕 위의 사나이>의 어느 대사 한 줄이 유독 귀에 익을 것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 스웨덴>은 ‘수신료의 가치’를 입증한 다큐멘터리다. 스웨덴의 공영 텔레비전 방송국 SVT는 1957년 개국 이래 첫날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슈를 보도했고, 이후에도 6일 전쟁, 1972년 뮌헨올림픽 테러, 사브라와 샤틀라 난민 캠프 학살과 같은 거대 참극은 물론 스웨덴 평화유지군, 팔레스타인 저항군, 검열 속에서도 보도

를 멈추지 않는 서안지구의 언론인 등을 대면해 심층취재했다. 영화는 그 자체로 유산인 1958~1972년 그리고 1973~1989년의 방대한 SVT 아카이브를 모아 재구성한다. 여기에 SVT의 보도 방식, 즉 사태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까지 가감 없이 엮는다. 중립적으로 보도 한다는 양비론적 거리두기가 학살의 비극을 막는 데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까. 격동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담는 ‘기록 방식의 기록’은, 1958년부터 1989년까지의 시간을 넘어 지금의 세계에도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206분에 달하는 이 준엄한 기록을 극장에서 버티며 사유해보자.

지금, 스웨덴을 비추는 시선

동시대 스웨덴과 호흡하는 작품들도 준비돼 있다. 수산나 에드바즈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다이얼로그 폴리스〉는 스웨덴에만 존재하는 특별경찰전술의 일종, 대화경찰을 밀착 취재한다. 2001년 예테보리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반대시위에서 경찰 발포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자, 스웨덴 정부는 대화경찰제도를 도입했다. 집회 전부터 주최측과 접촉해 시위대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경찰 지휘부에 전달하며 협상력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다이얼로그 폴리스〉는 발족 이후 약 20년이 흐른 대화경찰의 노동 현장에 카메라를 가져다댄다. 이들은 시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경찰의 의무인 법치 유지 사이의 중재자다. 하지만 현장 중재는 전체 업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들은 실내에서 더 많은 일을 한다. 평화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시위 전후 주최측과 시민 사이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소통 방안을 고심하고, 노동자로서 지속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적 투쟁을 벌인다. 〈다이얼로그 폴리스〉는 대화경찰이라는 특수한 직책을 프리즘 삼아 민주주의 시스템의 현재적 실효성을 질문한다. 혐오 세력에게도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선의와 헌신은 정말 민주적 대화를 낳는가. 특히 영화가 비추는 2022년의 스웨덴 풍경은 모든 소요가 지난 이후 시민과 공권력 모두에 던져진 민주주의의 책무를 통감케 한다.

엄숙하고 시의적인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봤으니, 몸을 움직여 부담을 덜 차려다. 리사 랑 세트 감독의 〈댄스 클럽〉은 러닝타임 내내 누구든 울동하며 즐길 수 있는 코미디다. 심리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심리학도 요한네스, 행위예술가 라켈은 진단과 처방만으로 울분을 완치할 수 없는 이들과 댄스 클럽을 결성한다. 클러버들은 춤을 통해 자신들에게 고통을 선사한 제도에 반격한다. 또 인간에게 받은 상처를 온건하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양갈음한다. 이 유쾌한 투쟁기는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독점자본과 결합했을 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를 건드린다. 영화의 주요 무대인 정신건강 클리닉 ‘케어’는 무분별한 진단과 처방을 남발한다. 환자의 실제 증세와 치료 여부에 관계없이, 진료 건수가 많을수록 정부로부터 더 많은 배당지원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의 명백한 수혜 대상인 납세자 시민들의 정신 건강 치유와 복지정책의 선순환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악화일로다.

영화는 이를 적시하고 선전하기보다, 춤과 노래 그리고 캐릭터 코미디를 통해 관객이 고민해볼 여지를 우회적으로 남긴다.

앞서 언급한 〈베르트가 다 망쳤어〉는 스웨덴 교육제도의 단면을 살필 수 있는 작품이다. 영화 속 베르트와 친구들은 직업 체험 주간을 맞이한다. 레스토랑 티펜에서 실습을 시작한 베르트는 그곳의 견습생인 몰리에게 첫눈에 반한다. 그런데 하필 몰리는 베르트의 단짝인 오케가 일찍이 짝사랑하던 존재다. 스웨덴의 진로교육 정책이 아니었다면 영화 속 삼각관계는 없었을 것이다. 스웨덴의 청소년들은 대개 8학년과 9학년 사이(한국에 대입하면 중2, 중3 정도의 시기다) 기업이 제공하는 2주간의 직업 체험에 돌입한다. 당연히 학교는 학생들이 적법한 노동 절차에 맞춰 근로하는지를 감독하고, 학생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제한된 업무를 보험 제도의 보장 아래 수행한다. 이들의 요절복통 로맨스를 걱정 없이 볼 수 있는 이유다.

〈도거랜드〉는 이번 영화제에서 가장 실험적인 작품이다. 킴 에크베리 감독은 상업적 편당과 기획에 긴 시간을 허비하는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단 4명의 스태프로 팀을 꾸려 작업을 시작했다. 또 실제 모자 관계인 비전문 배우들을 섭외한 후, 대본 없이 출연진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방향을 현장에서 고심해 창조해냈다. 〈도거랜드〉는 스웨덴의 현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한 대안적 상상력까지 담아낸다. 이를테면 다큐멘터리 감독 온 린드크비스트가 시네마테크에서 진행하는 강연을 별다른 편집 없이 삽입한다. 다른 예로 스웨덴의 초기 페미니스트이자 사회주의자인 카타 달스트림의 서사를 연극의 형태로 재현한다. 이는 영화가 문화를 순환시키는 방식을 영화만이 전할 수 있는 형태로 표상해낸 사례다. 이쯤에서 제목도 눈여겨보자. 도거랜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수몰된 유럽의 일부 지형을 뜻한다. 작중 배경은 스웨덴 북부의 노르셰핑. 이 지역은 과거 강력한 문화 인프라를 자랑했지만 현재는 정치적 변화로 인해 문화적 토대를 잃어간다. 그렇게 〈도거랜드〉는 정치 논리가 앓아간 예술을 복원하자는 메시지를 픽션과 논픽션을 오가며 전한다.

노르셰핑을 설명한 김에 올해 초청작의 지역적 다양성까지 톺아보고자 한다. 제15회 스웨덴영화제는 어느 때보다 풍성한 스웨덴의 풍경을, 보다 정확히는 비(非)스톡홀름의 다양한 면면을 큰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댄스 클럽〉은 스웨덴 최북단에 가까운 작은 마을 아리예플로그에서 영화의 중요한 분기점을 맞는다. 영화의 주요 촬영 또한 스웨덴 북부의 룰레오에서 이루어졌다. 〈세븐 스텝〉은 스웨덴 동부의 클래식한 도시, 헤르뇌산드의 풍경을 공동여 비춘다. 〈베르트가 다 망쳤어〉의 배경은 가상도시 외레스코가인데, 이는 쇠렌 올손의 고향 외레브로와 안데르스 야콥손의 고향 칼스코가의 이름과 특성을 합친 동네다. 스톡홀름 이외의 도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삶의 질감이 가볼 일 드문 스웨덴의 이모저모를 속속들이 즐기도록 돕는다.

제15회
스웨덴영화제

상영작 소개

자막 본 영화제의 초청작은
한국어 자막으로 상영됩니다.

등급 **G** 전체관람가
12 12세 관람가
15 15세이상 관람가
19 19세이상 관람가

THE 15TH
SWEDISH FILM FESTIVAL

15



“선을 넘어보고 싶단 생각 한번도 안 해봤어?”

세븐 스텝

7 steg

2025 / 컬러 / 118분

드라마, 로맨스 12 애막작

언어 스웨덴어, 프랑스어, 영어
각본 안드레아스 외만
베로니카 마지오
출연 베로니카 마지오
요엘 스피라
제작 Grand Slam Film

파리행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엘과 요제프는 강렬한 사랑에 빠져든다. 모든 인간관계가 일곱 단계를 거쳐 흘러간다는 엘의 독특한 관념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던 중, 여섯 번째 단계에 도달한 어느 아침 엘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요제프는 엘을 찾기 위해 그들이 지나온 궤적을 뒤쫓기 시작한다. 영화는 스톡홀름과 파리, 서울을 무대로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중첩하며 비선형적인 시간선을 교차시킨다. 뒤틀린 시간축 위에서 요제프가 마주하는 착각과 기억의 환영은 상실의 공백 속에서도 여전히 생생하게 일렁이는 사랑의 풍경을 드러낸다. 감독의 오랜 뮤직비디오 파트너인 팝스타 베로니카 마지오가 주연과 공동 각본을 맡았다.

최재혁 영화평론가



감독 안드레아스 외만

안드레아스 외만은 영화를 통해 인물 고유의 관념 체계를 시각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제1회 스웨덴영화제에 초청된 장편 데뷔작 <심플 사이먼>(2010)이 아카데미 국제 장편영화상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주목받았고, <이터널 섬머>(2015) 역시 제6회 스웨덴영화제에 소개되는 등 다수의 영화제로부터 인정받은 스웨덴 영화감독이다.



“나는 새 역사 교사, 브레송 선생님을 만났다”

아름다운 그해

La belle année

2026 / 컬러 / 95분

다큐멘터리 15

언어 스웨덴어, 프랑스어, 영어
각본 안젤리카 뤼피에
출연 안젤리카 뤼피에
툼 뤼피에
실비 브레송
제작 MDEMC Production AB

기억과 상처를 마주하기. 수없이 반복된 영화의 단골 소재지만 <아름다운 그해>는 그중에서도 독창적이다. 영화 속 ‘그해’는 감독 안젤리카 뤼피에의 10년대. 청소년 뤼피에는 학교에 새로 부임한 역사 선생님, 브레송에게 사로잡힌다. 선생님을 향한 외사랑은 어린 뤼피에로 하여금 예술에 눈을 뜨게 만들고 삶의 의지를 북돋았다. 30대에 접어든 뤼피에가 그때를 다시 회상하게 된 건 또 다른 ‘그해’ 덕분이다. 아버지의 사망을 계기로 남프랑스의 본가로 돌아가 집에 보관 중인 옛 추억을 고스란히 맞닥뜨렸기 때문이다. 영화가 추억이 남긴 유산을 정리하는 방식은 또 다른 ‘영화들’이다. 올해 로테르담국제영화제 경쟁(타이거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정재현 <씨네21> 기자



감독 안젤리카 뤼피에

감독이자 시나리오작가. 스웨덴 룰레오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자랐으며, 2017년부터 스웨덴에서 거주 중이다. 안젤리카 뤼피에 감독은 스톡홀름예술대학교에서 다큐멘터리 연출 석사과정을 거쳤다. <아름다운 그해>는 첫 번째 장편영화로 2023년에 신인감독을 대상으로 하는 스웨덴영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세편 중 하나다.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건 늘 염두에 두고 있어요”

다이얼로그 폴리스

Dialogpolisen

2025 / 컬러 / 90분

다큐멘터리 

언어 스웨덴어, 영어
출연 에리크 페츨클레르
니콜레 캄네르트
요한 헤드
이뮌 엔델레이
제작 Siren Film

총과 방패 대신 오직 말과 인내심만을 무기 삼아 첨예한 사회적 갈등의 최전선에 서는 이들이 있다. <다이얼로그 폴리스>는 2001년 예테보리 시위 총돌을 계기로 창설된 스웨덴의 ‘대화경찰’의 일상을 밀착하여 조명한다. 이들은 이슬람 혐오 집회, 코란 소각, 기후 시위처럼 첨예한 가치관이 대립하는 현장에서 위태로운 중재자 역할을 도맡는다. 그러나 상호 신뢰가 무너지는 분열의 시대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치안 유지 사이의 딜레마를 조율하려는 소통의 시도는 매번 실패의 위기에 부딪힌다. 현장의 긴박한 상황과 인물들의 내밀한 고뇌를 유기적으로 교차시킨 편집의 리듬은 대화로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사수하려는 이들의 지난한 투쟁을 관객에게 생생하게 체감시킨다. 최재혁 영화평론가



감독 수산나 에드바즈

수산나 에드바즈는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작업하는 스웨덴 감독이다. 여성 투우사를 다룬 <선새도>나 복싱 챔피언의 삶을 그린 <골든 걸>처럼, 삶의 치열한 경계에 선 인물들을 집요하게 탐구해왔다. 대상의 내면에 바짝 밀착한 카메라로 인물의 심리적 압박과 현장의 긴장감을 스크린 위에 새겨 넣으며 독자적인 다큐멘터리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남들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야
자기 생각이 들리기 시작하죠”

댄스 클럽

The Dance Club

2025 / 컬러 / 100분

코미디, 로맨스 15

언어 스웨덴어
각본 리사 랑세트
출연 닐스 베테르홀름
알바 브라트
페르닐라 아우구스트
제작 Meta Film Stockholm

심리학도 요한네스는 진단과 이윤 중심으로 규격화된 병원 시스템에 의문을 품고, 퍼포머 라켈과 함께 환자들을 위한 댄스 클럽을 조직한다. 이곳에서 춤은 단순한 임상 치료의 영역을 넘어 스스로를 억눌렀던 고통의 대상과 대면하는 신체적 저항의 언어로 기능한다. 그러나 제도적 경계를 이탈해 집단적인 소요로 번지는 몸짓은 요한네스마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관리와 신체의 해방 사이의 윤리적 딜레마를 노출한다. 영화는 통제 불가능한 육체의 역동성을 통해 자본화된 의료 권력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동시에, 규격화된 진단명으로 재단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수행적인 연대를 짚어낸다.

최재혁 영화평론가



감독 리사 랑세트

리사 랑세트는 인물의 심리적 결핍과 관계의 균열을 포착해온 스웨덴의 감독이다. 데뷔작 〈퓨어〉에 이어, 제4회 스웨덴영화제에서 소개된 〈호텔〉을 통해 상처 입은 이들의 방황과 연대를 밀도 있게 그려냈다. 넷플릭스 시리즈 〈러브 앤 아나키〉에서 사회적 관습을 전복하는 유쾌한 시선까지 선보이며 인간의 숨은 욕망을 가감 없이 풀어내고 있다.



“나는 행복해요”

도거랜드

Doggerland

2026 / 흑백 / 76분

드라마 

언어 스웨덴어
각본 킴 에크베리
출연 윤 홀름
아니타 홀름
제작 Post Post

마을을 바라보는 알프는 연로한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산다. 그의 하루는 노동 대신 주민과의 대화, 각종 예술의 향유, 그것도 아니면 디아볼로 요요 돌리기에 국한돼 있다. 모니카는 아들이 직장을 구하고 독립하길 바라지만, 알프는 자기 신념을 묵묵히 관철해나간다. 어느 날 알프에게 유럽 순회 공연 기회가 찾아온다. 킴 에크베리의 <도거랜드>는 플롯이나 대사보다 몽타주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구축해가는 실험영화다. 이 실험은 일종의 ‘영화 운동’에 가깝다. 예산 삭감으로 삶의 터전이 좁아져 가는 스웨덴 북부의 노르세핑에서, 자본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소외된 매체(16mm 아날로그 필름)를 사용해 지역 주민들과 직접 연대해 만든 작품이기 때문이다. 정재현 <씨네21> 기자



감독 킴 에크베리

영화평론가 출신 킴 에크베리는 2017년 상파울루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바람이 원하는 곳으로 불어>로 데뷔하였다. 사라 파르크만, 메리트 헤밍슨, 카티 브란델리우스 등의 아티스트들과 뮤직비디오 작업을 하였다. 단편영화 <투게더>(2Gether)는 2022년 에테보리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단편상을 수상했고, 현재 사반디 그로스킨드, 한나 비케르 비크스트림, 샤를로타 비리와 함께 독립제작사 Post Post를 운영하고 있다.



“좋은 여친 감이 대체 뭔데?
넌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

리브 어 리틀

Leva lite

2025 / 컬러 / 98분

드라마, 청춘 **19**

언어 스웨덴어, 영어
각본 파니 오베센
출연 엠블라 잉엘만 슌드베리
아비바 브레데
오스카르 르사주
오딘 로마누스
제작 Kjellson & Wik

라우라와 알렉스는 카우치 서핑으로 유럽 여행을 떠난다. 자유분방한 알렉스는 가벼운 만남과 일탈을 기대하며 들뜨지만 라우라는 남자 친구를 생각하며 마음이 무겁다. 첫 여행지인 바르샤바에서 낯선 남자의 초대에 응한 두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과 밤새 파티를 즐기는데 다음날 같은 카우치 서핑 여행자인 루카스의 침대에서 깨어난 라우라는 지난밤의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과음으로 필름이 끊긴 라우라가 그날의 일을 되짚어보려는 시도를 영화는 조각난 기억과 불안한 상상이 뒤섞인 혼란으로 보여준다. <리브 어 리틀>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찬 여행을 여성으로서의 선택과 여성을 평가하는 외부의 시선을 고통스럽게 마주 보는 과정으로 뒤바꾼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감독 파니 오베센

1990년 스웨덴 출생. 노르웨이 영화학교를 졸업했다. 단편영화 <쉬-팩>은 베를린 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문 경쟁작으로 상영되었으며 다수의 상을 받았다. 두편의 TV시리즈를 연출했으며 <리브 어 리틀>은 파니 오베센의 첫 번째 장편 연출작으로, 노르딕 토틸츠 피치 수상 이후 스웨덴영화진흥원으로부터 신인감독 지원 기획편드를 지원받았다.



“처음엔 속이 울렁거리고 조금 지나면 실실 웃으면서
다니게 돼, 치아 미백이라도 한 것처럼”

베르트가 다 망쳤어

Bert sabbar allt

2025 / 컬러 / 83분

코미디, 드라마, 판타지 12

언어 스웨덴어
각본 안데르스 야콥손
타피오 레오폴드
쇠렌 올손
출연 악셀 아델뢰브
비고 라포
마틸다 그로스
제작 FLX

소꿉친구인 베르트와 오케. 학교의 인턴십 주간이 시작되기 전 오케는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소녀에게 첫눈에 반하며 사랑에 빠졌음을 베르트에게 고백한다. 친구의 사랑을 진심으로 격려한 베르트 역시 인턴으로 출근한 식당에서 알게 된 물리를 좋아하게 되는데, 오케가 사랑에 빠진 소녀가 바로 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물리와 점차 가까워지는 베르트는 모두를 속이는 것만 같아 괴로워하는데, 이 비밀이 탄로날 위기를 맞는다. <베르트가 다 망쳤어>는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성장영화다. 영화는 우정만이 전부였던 10대 청소년에게 연애가 끼어들면서 가족과 친구의 어설픈 조언과 도움, 비밀과 고백의 딜레마 사이를 유쾌하게 오간다. 유선야 영화평론가



감독 마누엘 콘차

스웨덴 말뫼 출생. 스톡홀름 연극예술대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했다. 그가 연출한 <헤더>는 근래 드라마 <아너 : 그녀들의 법정>으로 한국에서도 리메이크된 바 있다. 영화 <스웨디>로 2022년 스웨덴 골드바게상 각본상 후보에 올랐으며, 현재 스톡홀름과 LA를 오가며 활동 중이다.



“우리는 역사를 알아요. 알아야 할 것은 안다고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 스웨덴

Israel Palestina
på svensk TV 1958-1989

2024 / 컬러, 흑백 / 206분

다큐멘터리, 역사 19

언어 스웨덴어, 영어, 히브리어, 아랍어

제작 Story

스웨덴 공영방송 SVT가 1958년부터 1989년까지 방영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방대한 아카이브 영상으로 되짚는다. 뉴스, 현지 인터뷰와 탐사보도 등의 자료를 엮은 이 다큐멘터리는 이스라엘 건국 초기부터 중동 분쟁의 주요 사건을 따라간다. 신생국 이스라엘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던 초기 보도는 점차 점령과 난민,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으로 시선을 옮긴다. 푸티지마다 방송 시기와 프로그램 정보, SVT의 기록 체계가 챗처처럼 표시되는데 해설을 중심에 두지 않고 당시 실제로 방영되었던 영상을 연대기적으로 배열한 것이 특징이다. 작품은 분쟁의 역사를 다루는 동시에, 그 역사를 스웨덴의 공영방송이 어떤 언어와 이미지로 전달해왔는지를 보여준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감독 에란 휴고 올손

1965년 스웨덴 룬드 출생.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촬영감독, 제작사 Story의 공동 설립자이다.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웨덴왕립미술원에서 공부한 후 스톡홀름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였다. 선댄스, 베를린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했고 대표작으로 흑인 인권운동을 다룬 <블랙 파워 믹스테이프 1967~1975>와 아프리카 탈식민주의를 조명한 <폭력에 관하여> 등이 있다.



“니만? 그는 악질 경찰이었네”

지붕 위의 사나이

Mannen på taket

1976 / 컬러 / 110분

액션, 범죄, 드라마, 스릴러 19

언어 스웨덴어

각본 보 비더버그

출연 칼-구스타프 린드스테트

스벤 볼테르

에바 레마에우스

제작 Bo Widerberg Film

Stiftelsen Svenska Filminstitutet

Svensk Filmindustri

고위 경찰 니만이 변사체로 발견된다. 베테랑 형사 마르틴 베크, 무뚝뚝한 형사 에이나르 린 등이 공조해 수사에 착수한다. 이들은 피해자 주변을 심문하던 중 니만이 주변인들의 원한을 살 수밖에 없는 인물임을 알게 된다. 1970년대 스웨덴발 추리 스릴러의 리듬은 오늘날의 관객에게 분명 낯설 것이다. 하지만 쉬이 동요하지 않는 형사 마르틴 베크를 따라 영화에 가만히 몸을 맡겨보자. 1시간 28분여에 이르면,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영화적 스펙터클이 압도적인 실감으로 육박해올 것이다. 마이 세발과 페르 발뢰외의 전설적인 추리소설 연작, ‘마르틴 베크’ 시리즈 중 7권 〈어느 끔찍한 남자〉가 원작이다. 올해로 개봉 50주년을 맞이한다.

정재현 <씨네21> 기자



감독 보 비더버그

보 비더버그는 스웨덴의 감독이자 시나리오작가로 다수의 수상 이력을 가진 스웨덴 영화계의 핵심 인물이다. 영화계 입성 전에 언론인이자 소설가로도 유명했다. 프랑스 누벨바그에서 영향을 받아 1960년대 스웨덴 영화계에 새로운 변화를 이끈 인물로 대표작으로는 <엘비라 마디간> <아달렌 31> <아름다운 청춘> 등이 있다.

제15회
스웨덴영화제

상영 시간표

자막 본 영화제의 초청작은
한국어 자막으로 상영됩니다.

등급 **G** 전체관람가
12 12세 관람가
15 15세이상 관람가
19 19세이상 관람가

인터뷰영상 감독 영상 인터뷰
GV 감독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TALK 영화인과 함께하는 시네마토크

THE 15TH
SWEDISH FILM FESTIVAL

15

서울
SEOUL

아트하우스 모모
9월 8일(화) – 9월 14일(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9/8 화(Tue)		13:30 개막식	14:00 12 개막작 세븐 스텝 GV	19:00 15 댄스 클럽 인터뷰영상
9/9 수(Wed)	11:00 12 도거랜드	14:00 12 베르트가 다 망쳤어	16:30 12 다이얼로그 폴리스	19:30 15 아름다운 그해 GV
9/10 목(Thu)	11:00 19 리브 어 리틀	13:00 19 지붕 위의 사나이	15:30 19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 스웨덴	19:30 12 개막작 세븐 스텝 인터뷰영상
9/11 금(Fri)	11:00 15 아름다운 그해	14:00 12 다이얼로그 폴리스	17:00 12 베르트가 다 망쳤어	19:30 12 도거랜드
9/12 토(Sat)	11:00 19 리브 어 리틀	13:30 12 개막작 세븐 스텝 인터뷰영상	17:00 19 지붕 위의 사나이	19:30 15 댄스 클럽 인터뷰영상
9/13 일(Sun)	11:00 12 다이얼로그 폴리스	13:30 15 아름다운 그해	16:30 12 도거랜드	18:30 19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 스웨덴
9/14 월(Mon)	11:00 15 댄스 클럽 인터뷰영상	14:00 19 리브 어 리틀	16:30 12 베르트가 다 망쳤어	19:00 19 지붕 위의 사나이

- 티켓 예매 : 8/28(금) 오전 11시 오픈 | 아트하우스 모모 홈페이지, 디트릭스 웹/앱, 현장 발권
- 티켓 가격 : 1,000원

부산
BUSAN

영화의전당
9월 10일(목) – 9월 14일(월)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9/10 목(Thu)				19:00 개막식	19:30 12 개막작 세븐 스텝 인터뷰영상
9/11 금(Fri)	10:30 15 댄스 클럽 인터뷰영상	13:10 12 다이얼로그 폴리스	15:00 15 아름다운 그해 GV	18:00 12 개막작 세븐 스텝 GV	
9/12 토(Sat)	10:30 12 베르트가 다 망쳤어	12:20 19 리브 어 리틀	14:20 19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 스웨덴	18:10 12 도거랜드	19:50 19 지붕 위의 사나이
9/13 일(Sun)	10:30 12 개막작 세븐 스텝 인터뷰영상	13:30 15 아름다운 그해	16:00 12 베르트가 다 망쳤어	17:50 12 다이얼로그 폴리스	19:40 15 댄스 클럽 인터뷰영상
9/14 월(Mon)	11:00 12 도거랜드	13:00 19 지붕 위의 사나이	15:20 19 리브 어 리틀	17:30 19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인 스웨덴	

- 티켓 예매 : 9/3(목) 오전 10시 오픈 |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모바일 앱, 현장 발권(시네마اون틴 6층 매표소)
- 티켓 가격 : 1,000원

인천
INCHEON

영화공간 주안
9월 10일(목) – 9월 13일(일)

3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9/10 목(Thu)			16:10 19 지붕 위의 사나이	18:10 15 아름다운 그해	20:00 12 다이얼로그 폴리스
9/11 금(Fri)	13:20 19 리브 어 리틀	15:10 12 다이얼로그 폴리스	16:55 12 도거랜드	18:20 19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 스웨덴	
9/12 토(Sat)	13:05 19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 스웨덴		16:50 19 리브 어 리틀	18:40 12 도거랜드	20:10 15 아름다운 그해
9/13 일(Sun)	13:10 15 아름다운 그해	14:55 19 지붕 위의 사나이	16:55 12 다이얼로그 폴리스	18:35 12 도거랜드	20:05 19 리브 어 리틀

4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9/10 목(Thu)		15:00 개막식	16:00 12 개막작 세븐 스텝 인터뷰영상	18:50 12 베르트가 다 망쳤어	20:25 12 도거랜드
9/11 금(Fri)	13:10 19 지붕 위의 사나이	15:10 12 베르트가 다 망쳤어	16:45 15 댄스 클럽 인터뷰영상	19:15 12 개막작 세븐 스텝 인터뷰영상	
9/12 토(Sat)		14:00 12 개막작 세븐 스텝 TALK		17:50 15 댄스 클럽 인터뷰영상	20:20 12 베르트가 다 망쳤어
9/13 일(Sun)		14:00 15 댄스 클럽 TALK		17:35 12 개막작 세븐 스텝 인터뷰영상	20:25 12 베르트가 다 망쳤어

- 티켓 예매 : 영화공간 주안 현장 발권
- 티켓 가격 : 무료, 1인 최대 4매까지 발권

대구
DAEGU

CGV 대구현대
9월 18일(금) – 9월 20일(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9/18 금(Fri)		16:00 개막식	16:30 12 개막작 세븐 스텝 인터뷰영상	
9/19 토(Sat)	10:00 12 베르트가 다 망쳤어	14:00 15 아름다운 그해	16:30 15 댄스 클럽 인터뷰영상	19:30 19 리브 어 리틀
9/20 일(Sun)	10:00 12 도거랜드	14:00 12 다이얼로그 폴리스	16:30 19 지붕 위의 사나이	19:30 19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인 스웨덴

- 티켓 예매 : 스웨덴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내 티켓 예매 링크 참조
- 티켓 가격 : 무료, 1인 최대 4매까지 발권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02-363-5333
www.arthousemomo.com

부산 영화의전당
051-780-6000
www.dureraum.org

인천 영화공간 주안
032-427-6777
www.cinespacejuan.com

대구 CGV 대구현대
1544-1122
www.cgv.co.kr

주한스웨덴대사관
02-3703-3700
www.swedishfilmfestival.com

Instagram @SwedeninKorea

X @SwedeninKR

Facebook @SwedishEmbassyinSeoul

YouTube @SwedeninKorea

Blog blog.naver.com/swedishfilmfestival

2026 TEAM SWEDEN PARTNERS



Korea-Sweden Arts and Culture Society
한국-스웨덴 문화예술협회



2026 TEAM SWEDEN PARTNERS는 협업·개방성·솔루션 중심의 스웨덴식 접근을 바탕으로 혁신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며, 주한 스웨덴 기업 22개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15회 스웨덴영화제는 주한스웨덴대사관이 주최하고, **한국스웨덴문화예술협회** 및 **2026 TEAM SWEDEN PARTNERS**와 함께 합니다.

#MadeWithSweden #2026TeamSwedenPartners

스웨덴 -

색다른 자연이 한 편의 영화처럼
다가오는 곳



visitSweden.com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

9월 8일(화) - 9월 14일(월)

부산 영화의전당

9월 10일(목) - 9월 14일(월)

인천 영화공간 주안

9월 10일(목) - 9월 13일(일)

대구 CGV 대구현대

9월 18일(금) - 9월 20일(일)

주최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대외홍보처
스웨덴영화진흥원

주관

(주)영화사 백두대간
(재)영화의전당
영화공간 주안
재대구 스웨덴명예영사관

후원

한국스웨덴문화예술협회